

농촌생태관광 및 교육 복합 프로그램 개발 연구

림영철 · 정하성

(평택대학교 교수)

A study on the Compositeness program development of rural ecotourism and education

Yeong-Chul Lim · Ha-Song Chong

적 요

자연탐사를 비롯한 농촌 생활문화 체험을 교육적 가치와 목표달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복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과 도시가 유기체적 관계를 유지하며 생태관광과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복합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역사회별로 자원을 조사하고 교육적 가치를 파악하여 주체는 농민+학생+도시민이 되어서 추진하며 결과는 전문평가단에 의하여 실시한다. 지속적으로 활용할 때 도·농의 발전과 도·농민의 생활에 활력과 복지를 증진시킬수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 행·재정적으로 적극지원 해주어 활성화 시켜야 한다.

1. 서론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가 추구하는 제4물결의 가치추구는 자연과 인간의 유기체적 통합가치의 존중과 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되었으며 이의 수단으로 생태관광의 교육적 체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공간 기능의 집약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거리 요인에 의하여 주민의 불평등 구조가 생성되어서는 안된다. 도·농간 공존 윤리를 실현하고 상호간 보완하는 기능을 발전하도록 체계를 확립하여 자원 이용의 극대화를 시켜가고자 하는 노력과 요구를 외면 할수 없다. 이러한 배경 속에 도시민과 학생들이 체험을 통한 생태관광과 교육 기능을 농촌이 담당하므로

도·농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며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민의 인성개발을 위한 훈련의 장이 되어 도·농간 자원 활용의 효율화로 삶의 행복을 실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농기능이 보완되는 라반리즘(Rubanism)적인 생활형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과잉도시화(over urbanization)에 따른 도시민의 생활공간과 농촌 주민의 도시문화 수용 및 수입증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을 공간기능의 복합적 활용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도시민은 농촌지역의 자연상태의 공간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농촌주민은 도시민에게 장소제공과 농촌문화체험을 하도록 하므로 도·농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 특히 IMF구제금융시대의 경제

적 고통은 청소년에게 인내와 협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성세대는 정서적 안정 속에 새지식과 정보습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민이 농촌의 자연속에서 휴식과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교육기능을 활용하며 농촌주민은 도시문화와 전통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창조문화를 만들고 농가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농촌 생태 관광 및 교육의 복합적 접근

1. 생태 관광교육에 대한 이해

생태관광(ecotourism)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199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되기 시작한 자연관광(nature-oriented tourism)의 한 분야로서 관광자원의 보존을 중요시하는 관광이다. 멸종 위협을 받고 있는 동식물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가운데 이를 관찰하며 파악하면서 즐기는 관광형태로서 모험관광(adventure tourism)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생태관광은 보전과 관광의 상관성에 유의하고 자연환경 보전, 향토생산물(음식, 토산품, 음료) 애용 등 환경 친화적 관광이다. 최근에 APEC Working Group에서는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건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아태지역 경제발전의 한 수단¹⁾으로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광이 발전하자면 "자원 보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태관광이 지향하는 방향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생활 수준 향상, 고용촉진, 귀중한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을 기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녹색관광(green tourism)은 환경친화적 관광개념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녹색관광(green tourism)이라고 부르며 독일에서는 농촌관광(rural tourism), 전원에서의 관광은 녹색관광으로 구분하고 있다. 녹색관광은 광의적으로 볼 때 농촌관광(rural tourism)의 일부이며 이는 생태관광의 범주에 속한다. 녹색관광은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관광으로서 첫째, 손대지 않는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농촌살림이 중심이 되며 체류나 산책이 기본이다. 둘째, 지역사회

주민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다. 셋째, 도·농 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공헌한다.²⁾

2. 생태관광 및 교육복합요소

표 1에서 보듯이 생태관광 및 교육의 복합 구성요소는 자연환경 요소, 사회인문적 요소, 물질적 시설요소에 의한 생태관광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교육효과와 경제·사회·문화적인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조사결과

1. 조사대상 분석방법과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도시지역의 평택시와 천안시, 농촌지역의 연기군, 홍성군 등 4곳에서 표본추출로 선정된 농민과 도시민 570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동·서양의 기존문헌을 조사하고 도시민과 농민 Sample 570명을 조사하여 spss/pc+ 분석하며 도농주민의 면접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질문지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1998년 8월 1일부터 1998년 8월 10일까지 10일간의 농촌생태 관광농업과 교육연계 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민과 도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우편설문 조사와 분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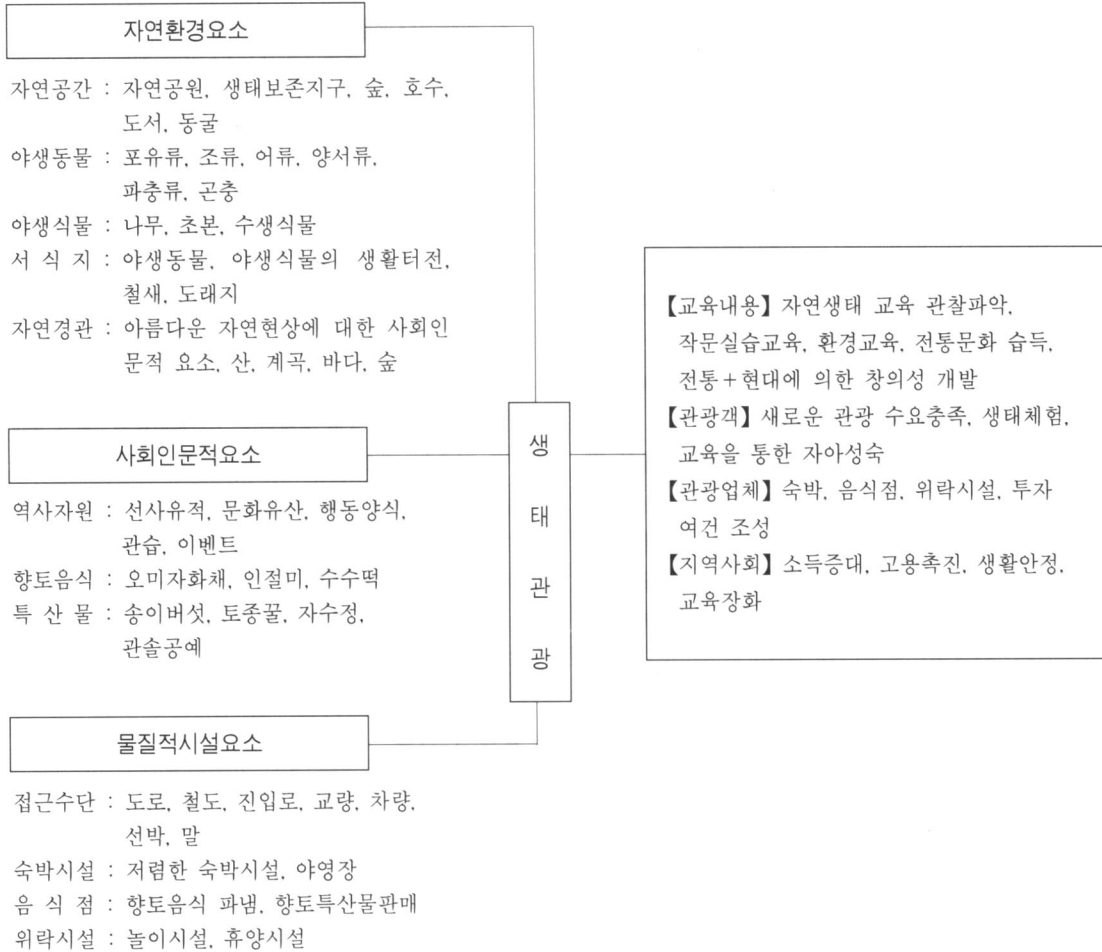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총 조사대상자는 563명이며, 조사대상자의 각 특성별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 2와 같다.

(1) 성 별

조사대상자 563명 가운데 68.2%(384명)가 남자이며, 31.8%(179명)는 여자였다.

표 1. 생태관광 및 교육의 구성요소



(2) 연령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1.4%(233명)가 20~30세이고, 26.3%(148명)는 31~40세이며, 20.4%(115명)가 41~50세였다. 그리고 9.2%(52명)는 51~60세, 2.7%(1명)가 61세 이상 이었다.

(3) 학력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8.0%(45명)가 국졸이고, 20.1%(113명)는 중졸이며, 49.4%(278명)가 고졸이었다. 그리고 22.6%(127명)는 대졸이었다.

(4) 지역

조사대상자 563명 가운데 50.6%(285명)가 도시민이며, 49.4%(278명)는 농민이었다.

2.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도·농 분석

1)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필요성

도시민과 농민들은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특성변수와 지역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

정하였다. 표 3에 의하면, 도시민과 농민들의 농촌생태관광 필요성에 대한 반응은 '필요하다' (59.3%), '꼭 필요하다' (25.2%), '그저 그렇다' (13.1%), '필요하지 않다' (2.3%)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개인특성변수와 지역변수의 차이검정 결과는 성별에 관계없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력과 연령 및 지역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① 지역별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필요성

지역별에 따른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은 표 3과 같이, 도시와 농촌 모두 '필요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의 경우 '꼭 필요하다'가 31.2%로 나타나 도시민들이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을 보다 더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개인특성 변수별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필요성

개인특성변수에 따른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의 경우 대체적으로 젊은층일수록 '꼭 필요하다'는 응답율이 높았으며, 학력의

경우는 학력이 높은 집단 일수록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도시민과 농민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며, 이는 지역변수나 개인특성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정하였다. 도시민과 농민들의 농촌생태관광 필요성에 대한 이유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을 이해하는 근본이 된다' (44.3%), '도시민, 농민, 학생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21.2%), '교육적, 사회적 가치가 있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0%),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 (14.5%)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개인특성변수, 즉 성별,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변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① 지역별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자	384	68.2%
	여 자	179	31.8%
연 령	20~30세	233	41.4%
	31~40세	148	26.3%
	41~50세	115	20.4%
	51~60세	52	9.2%
	61세이상	15	2.7%
학 력	국 졸	45	8.0%
	중 졸	113	20.1%
	고 졸	278	49.4%
	대 졸	127	22.6%
지 역	도 시	285	50.6%
	농 촌	278	49.4%
전 체		563	100%

한 이유

지역별에 따른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표 4와 같이, 도시와 농촌 모두 '농촌을 이해하는 근본이 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교육적, 사회적 가치가 있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반면에 농촌의 경우는 '도시민, 농민, 학생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3) 도시민 분석

(1) 선호하는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활동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은 무엇이며, 개인특성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정하였다.

표 5에 의하면, '논·밭의 농장을 활용하는 학습활동'이 36.1%, '농촌주택, 마당 등을 이용한 전통문화 체험'이 28.8%, '농업노동을 체험하고 노작실습을 한

표 3. 지역변수 및 개인특성변수와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필요성

구 분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계	$\chi^2 - 값$	d.f				
지역별	도 시	빈도	89	165	24	7	285	18,303***	3			
		%	31.2	57.9	8.4	2.5	100.0					
	농 촌	빈도	53	169	50	6	278					
		%	19.1	60.8	18.0	2.2	100.0					
연령별	20~30세	빈도	77	129	22	5	233	38,382***	12			
		%	33.0	55.4	9.4	2.1	100.0					
	31~40세	빈도	33	91	22	2	148					
		%	22.3	61.5	14.9	1.4	100.0					
	41~50세	빈도	18	80	17	0	115					
		%	15.7	69.6	14.8	0.0	100.0					
	51~60세	빈도	12	27	9	4	52					
		%	23.1	51.9	17.3	7.7	100.0					
	61세 이상	빈도	2	7	4	2	15					
		%	13.3	46.7	26.7	13.3	100.0					
	학력별	국 줄	빈도	7	19	14	5			45	43,606***	9
			%	15.6	42.2	31.1	11.1			100.0		
중 줄		빈도	23	74	16	0	113					
		%	20.4	65.5	14.2	0.0	100.0					
고 줄		빈도	73	162	38	5	278					
		%	26.3	58.3	13.7	1.8	100.0					
대 줄		빈도	39	79	6	3	127					
		%	30.7	62.2	4.7	2.4	100.0					
계	빈도	142	334	74	13	563						
	%	25.2	59.3	13.1	2.3	100.0						

다'가 2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학력은 유의 수준 0.05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① 성별 선호하는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활동

표 5와 같이, 남녀 모두 '논, 밭의 농장을 활용하는 학습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② 학력별 선호하는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활동

학력별에 따른 도시민이 선호하는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활동을 살펴 보았는데, 고졸집단과 대졸집단의 경우 '논, 밭의 농장을 활용하는 학습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학력집단에서는 '농업노동체험 및 노작실습'이 가장 높게 나왔다.

표 4. 지역변수 및 개인특성변수와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구 분		농촌을 이해하는 근본이 된다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	도시민, 농민, 학생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적, 사회적 가치가 있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계	χ^2 - 값	d.f	
지역별	도 시	빈도	98	47	51	58	254	12,682**	3
		%	38.6	18.5	20.1	22.8	100.0		
	농 촌	빈도	113	22	50	37	222		
		%	50.9	9.9	22.5	16.7	100.0		
계	빈도	211	69	101	95	476	X		
	%	44.3	14.5	21.2	20.0	100.0			

표 5. 개인특성변수와 선호하는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활동

구 분		농촌주택, 마당 등을 이용한 전통문화 체험	논, 밭의 농장을 활용하는 학습활동	산·냇가 등 자연속에서 동식물 채집과 관찰활동	농업노동을 체험하고 노작 실습을 한다.	계	χ^2 - 값	d.f	
성별	남 자	빈도	37	50	22	41	150	7,498*	3
		%	24.7	33.3	14.7	27.3	100.0		
	여 자	빈도	45	53	16	21	135		
		%	33.3	39.3	11.9	15.6	100.0		
학력별	중졸이하	빈도	7	6	11	14	38	23,074***	6
		%	18.4	15.8	28.9	36.8	100.0		
	고 졸	빈도	52	64	17	25	158		
		%	32.9	40.5	10.8	15.8	100.0		
	대 졸	빈도	23	33	10	23	89		
		%	25.8	37.1	11.2	25.8	100.0		
계	빈도	82	103	38	62	285	X		
	%	28.8	36.1	13.3	21.8	100.0			

(2)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을 통한 농민과 관계 맺기 방법

도시민들이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을 통하여 농민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개인특성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정하였다. 표 6와 같이, 도시민들이 농민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은 '농업노동을 체험하여 농민의 정체성 이해'가 36.5%, '시기별 축제를 개최하여 공유문화 창조'가 34.0%, '공동숙식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학력은 유의수준 0.05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① 연령별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을 통한 농민과 관계 맺기 방법

연령별에 따라 도시민들이 농민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살펴 보았는데, 20~30세의 경우에는 '시기별 축제를 개최하여 공유문화를 창조'가 39.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31~40세의 경우는 '공동숙식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32.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40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는 '농업노동을 체험하여 농민의 정체성 이해'가 43.2%로 가장 높게 나왔다.

② 학력별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을 통한 농민과 관계 맺기 방법

학력별에 따라 도시민들이 농민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은 표 6과 같이, 중졸 이하와 대졸집단에서는 '농업노동을 체험하여 농민의 정체성 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고졸집단에서는 '시기별 축제를 개최하여 공유문화를 창조'가 40.5%로 가장 높게 나왔다.

(3) 농장에서의 생산활동 참여 프로그램

도시민들은 농장에서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특성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표 6. 개인특성변수와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을 통한 농민과 관계 맺기 방법

구분		공동숙식을 통한 신뢰성 확보	대화를 통한 공동체 이해	시기별 축제를 개최하여 공유문화를 창조	농업노동을 체험하여 농민의 정체성 이해	계	$\chi^2 - 값$	d.f	
연령별	20~30세	빈도	26	16	72	69	15.956**	6	
		%	14.2	8.7	39.3	37.7			100.0
	31~40세	빈도	19	7	16	16			58
		%	32.8	12.1	27.6	27.6			100.0
	41세 이상	빈도	12	4	9	19			44
		%	27.3	9.1	20.5	43.2			100.0
학력별	중졸이하	빈도	5	2	9	22	13.971*	6	
		%	13.2	5.3	23.7	57.9			100.0
	고 졸	빈도	33	14	64	47			158
		%	20.9	8.9	40.5	29.7			100.0
	대 졸	빈도	19	11	24	35			89
		%	21.3	12.4	27.0	39.3			100.0
계	빈도	57	27	97	104	285	X		
	%	20.0	9.5	34.0	36.5	100.0			

검정하였다. 그러나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에 활용하고 싶은 농촌의 자원

도시민들이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자원은 무엇이며, 이는 개인특성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정하였다. 그러나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농민 분석

(1)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 분야

농민들이 바라는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 분야는 무엇이며, 이는 개인특성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정하였다. 그러나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농촌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을 해 줄 의향

농민들은 도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을 해 줄 의향이 있는지, 이는 개인

표 7. 개인특성변수와 농촌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을 해 줄 의향

구 분		꼭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계	$\chi^2 - 값$	d.f
성 별	남 자	빈도	28	97	85	24	11.192**	3
		%	12.0	41.5	36.3	10.3		
	여 자	빈도	3	19	10	12		
		%	6.8	43.2	22.7	27.3		
연령별	20~30세	빈도	5	26	13	6	22.464**	9
		%	10.0	52.0	26.0	12.0		
	31~40세	빈도	9	43	33	5		
		%	10.0	47.8	36.7	5.6		
	41~50세	빈도	7	30	34	10		
		%	8.6	37.0	42.0	12.3		
	51세 이상	빈도	10	17	15	15		
		%	17.5	29.8	26.3	26.3		
학력별	국 졸	빈도	3	13	14	13	19.056*	9
		%	7.0	30.2	32.6	30.2		
	중 졸	빈도	11	29	29	8		
		%	14.3	37.7	37.7	10.4		
	고 졸	빈도	11	54	43	12		
		%	9.2	45.0	35.8	10.0		
	대 졸	빈도	6	20	9	3		
		%	15.8	52.6	23.7	7.9		
계	빈도	31	116	95	36	278		
	%	11.2	41.7	34.2	12.9			

특성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지를 검정하였다.

표 7을 살펴보면, 농촌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을 해 줄 의향은 '하고 싶다' (41.7%), '그저 그렇다' (34.2%), '필요하지 않다' (1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는 개인특성변수, 즉 성별, 연령, 학력 모든 변수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① 성별 농촌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을 해 줄 의향
 성별에 따라 농촌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을 해 줄 의향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대체적으로 '하고 싶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② 연령별 농촌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을 해 줄 의향
 연령별에 따라 농촌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을 해

줄 의향을 살펴 보았는데, 모든 연령층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젊은 층일수록 '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③ 학력별 농촌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을 해 줄 의향

학력별에 따른 농촌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을 해 줄 의향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하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3)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 방법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 방법은 무엇이며, 이는 개인특성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정하였다. 그러나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개인특성변수와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주체

구 분		지방정부	농 민	농민+도시 민+학생	주식회사	계	$\chi^2 - 값$	d.f	
연령별	20~30세	빈도	12	10	25	3	21,058**	9	
		%	24.0	20.0	50.0	6.0			100.0
	31~40세	빈도	24	28	35	3			90
		%	26.7	31.1	38.9	3.3			100.0
	41~50세	빈도	26	30	23	2			81
		%	32.1	37.0	28.4	2.5			100.0
51세 이상	빈도	29	10	15	3	57			
	%	50.9	17.5	26.3	5.3	100.0			
학력별	국 졸	빈도	24	7	9	3	43	30,600***	9
		%	55.8	16.3	20.9	7.0	100.0		
	중 졸	빈도	28	29	20	0	77		
		%	36.4	37.7	26.0	0.0	100.0		
	고 졸	빈도	32	34	49	5	120		
		%	26.7	28.3	40.8	4.2	100.0		
	대 졸	빈도	7	8	20	3	38		
		%	18.4	21.1	52.6	10.9	100.0		
계	빈도	91	78	98	11	278	X		
	%	32.7	28.1	35.3	4.0	100.0			

(4)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주체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주체는 무엇이며, 이는 개인특성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정하였다.

표 8에 의하면,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주체는 '농민+도시민+학생' (35.3%), '지방정부' (32.7%), '농민' (28.1%), '주식회사' (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 방법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 연령과 학력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① 연령별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주체

연령별에 따라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주체를 살펴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농민+도시민+학생' 과 '지방정부'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농민+도시민+학생'의 응답이 높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지방정부'의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② 학력별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주체

학력별에 따라 농촌생태관광 연계교육의 주체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지방정부'와 '농민+도시민+학생'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농민+도시민+학생'의 응답이 높았고,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지방정부'의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 외국사례

농림어업의 한 과정 또는 전부를 레크리에이션에 적용시키거나 농장의 임대 또는 농업생산물의 직판을 그 기저로 하고 있으며 생태관광농업의 종류는 ①생산수단 대여형 ②농산물 채취형 ③장소제공형(생산공간 제공형, 생활공간 제공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생태관광농장의 소유 및 운영형태는 단체(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개인(공유, 사유)으로 구분되나 사유가 대부분이다.

가. 일본의 딸기 농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 정망현 청수시증 187의1에 있는 딸기농원의 경영주체는 청수시증 딸기수조합(임의 조합)으로서 대도시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다. 1968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총

면적 80,000㎡에 딸기묘목은 약90만주 규모이며 부대 시설은 주차장3개소(9,00㎡), 접수시설, 화장실 등이다. 이용요금은 계절에 따라 다르나 대략 1인당 400~500엔이다.

관리는 조합직영으로 조합원 29명이 순번으로 안 내업무에 종사하며 조합장, 부조합장, 회계 3인은 상근하고 나머지는 임시직으로 아르바이트(학생, 주부)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연간 약10만명이며 가족동반, 친척 등의 소그룹이 지배적이고 단체관광은 30% 정도이다.

시행목적은 농원체제 목적이 약 50%이며, 나머지는 잠시 주변의 주변지를 경유하며 행락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원의 연간 수입은 대개 4000만엔 정도로서 농원 사용료 80%, 직판(딸기, 잼 등) 20%의 비율이며, 지출은 조합원 급료, 재료비, 선전비, 인건비(아르바이트)등이 주된 지출 항목이다. 딸기농원 조합의 목적은 딸기시장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불안요소를 없애고 안정적 소득을 얻는 데 있다.

나. 일본의 고우전 생태관광농원은 자성현 신치군 천대자촌 자하토리 1206에 있는 생태관광농원으로 품종별로 밤18,000㎡, 배4,500㎡, 포도4,000㎡, 수원지 10,000㎡, 기타6,500㎡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설내용은 주차장 2개소(1,500㎡) 휴게소1동(60㎡) 매점1동(19㎡), 바베큐시설 15동(250인 수용), 창고, 관리실(36㎡), 조리실, 휴게소(105㎡), 세면실(18㎡)등이 있다. 농원을 찾는 목적은 체재목적이 70%, 다음은 주변행락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고, 수입 상황은 1,800만엔으로 농원사용료와 농산물 판매가 70%이며, 음식판매가 30%, 자출은 재료비, 인건비, 잡비 등이다.

다. 일본의 농원호텔은 동경으로부터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기옥현 주부시에 있는 농원호텔은 부지가 3,000㎡이고 호텔시설 면적은 840㎡, 주차장900㎡이다. 관광농원은(170,000㎡)은 38가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한다. 입장료는 대상과 기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으며 호텔수용능력은 85~142인, 홀은 120인이며 숙박, 음식, 자동차 대여, 별장분양, 활쏘기, 승마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농원내 호텔의 관리체제는 38가구가 농원회를 조직 출자하고 있고 종사원

의 대부분은 현지 채용자이다.

이용자는 가족동반의 전체의 90%이며, 수입원은 호텔수입의 59%, 연회 및 음식판매가 25%, 입장료 16%이다.³⁾ 외국의 경우 생태관광농원의 하나인 시민농원의 경우 각국마다 명칭과 성격 그리고 발생시기와 법률 및 목적 등이 상이하다(표 9)⁴⁾.

외국의 경우 생태관광농원의 하나인 시민농원의 경우 각국마다 명칭·성격·발생시기·법률·목적 등이 상이하다(표 9).

N. 복합프로그램 개발모형

1. 개발방향과 기준

생태관광은 자연 및 자연자원에 근거를 두고있는

야생동물의 생태와 서식지를 대상으로 한 관광유형으로 독립하여 전문관광으로 발전하고 이용자께 체험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며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태의 관광이 되어야 한다.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있어 유의할점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연 스스로 재생, 복원능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개발하는 사람과 관광객, 관광사업자 모두 이를 지켜야 한다. 관광자원이 되는 자연생태의 환경변화에 대한 민감도,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한계수용능력을 설정하여 생태계, 수질, 해안, 도서에서 이루어지고 미개발된 원시림, 늪, 호수, 초원지대가 이용대상이 되며 이러한 곳을 찾아 야생동물의 생태와 서식지를 관광대상으로 하며 교육적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기대이익은 여행자의 정서함양, 자연

표 9. 외국의 생태관광 시민농원현황

구 분	독 일	네덜란드	영 국	일 본
1) 명칭	분구원 (Klein Garten)	원예농원 (호르크스투인)	할당지 (Allotment)	시민농원(구민, 레저, 실비, 접축, 고향체험 농원)
2) 성격	레저 채원형	레저 채원형	실리채원형	실리채원형
3) 발생시기	· 19세기	· 19세기	· 18세기 후반	· 1960년대 중반
4) 법률	· Klein Garten법 (1991년 제정 1993년 최종 개정)	· 여가생활의 수단 · 공공녹지로서의 기능	· Allotment법 (1889년 제정 그후 수차에 걸쳐 법제정)	· 특정농지대부법 (1989년 제정) · 시민농원정비촉진 법(1990년 제정)
5) 제도의 목적	· 자연에 친밀한 장 의 제공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함 · 도시지역의 녹화 유지		· 빈곤자의 구제기 능이 약하고 여가 생활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더욱 중시 · 최근에는 신선, 안전식품 수요증가 에 대응	· 농업종사자 이외 지방 공공단체 또는 농협을 통하여 비영 리를 목적으로 작은 면적의 농지 이용. · 좋은 도시환경의 형성과 농촌지역진 흥에 이바지 함.
6) 생산물 판매	· 판매하지 못함.	· 판매하지 못함.	· 판매하지 못함.	· 명확하지 않음.
7) 농업생산량에서	· 생산량의 32%	· 명확하지 않음.	· 명확하지 않음.	

사랑, 자연보호, 삶의 질 향상, 자연체험과 모험을 통한 정신적 만족을 들 수 있다. 보다 만족스러운 생태관광으로 발전하자면 자연적 요소, 인문적 요소, 물질적 요소가 골고루 있어야 하고 보존상태, 활용상태, 접근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자연탐사, 민속놀이, 전통음식, 농산어촌 체험 프로그램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연계되어 관광교육의 복합기능을 살려야 한다.

2. 개발모형제시

생태관광 및 교육의 기능이 발현되고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호연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농촌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시설자원, 인적자원, 사회적자원을 도시민의 교육적 욕구와 가치에 맞도록 시기와 내용별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조사분석결과 도시민과 농민 모두가 생태관광이 교육과 연계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주체는 농민+도시민+학생이 되어야 한다며 농민이 교육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생태관광을 통하여 산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으며, 농촌과 도시의 문화, 사회, 교육, 경제적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복합내용에 있어 농촌의 생태관광과 도시의 교육적인 두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농촌의 생태관광 기능으로는 자연현상과 자연상태의 보존, 농촌구조 개선, 도농 관계 개선 그리고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과 개발 등이며 도시인의 교육적 기능으로는 자연관찰, 파악, 체험, 도·농비교 원인분석, 상이점 발견, 습득, 분석, 대안모색을 통한 창의성 발현이다. 생태관광 교육 프로그램에 자원탐사를 비롯하여 향토전통음식과 놀이, 민속을 체험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며 이를 월별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정책지원

생태관광 교육연계 프로그램에 따른 자연보호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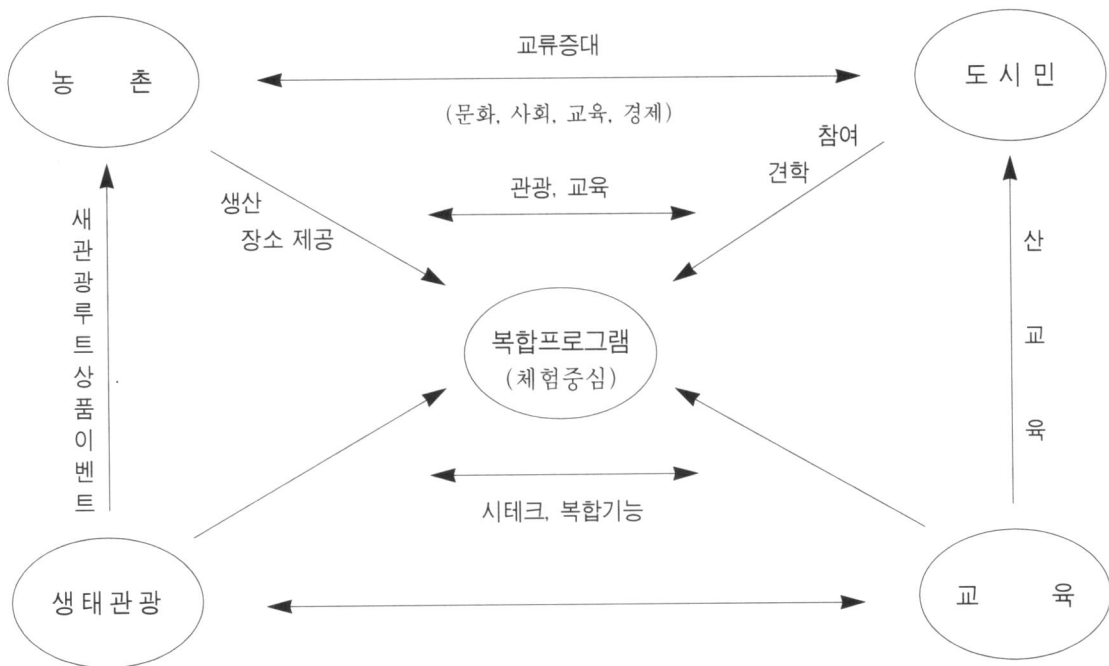


그림 1. 생태관광 및 교육의 복합 체계 모형

리 및 유지 그리고 교육적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첫째, 생태관광 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태관광 자원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파악하여 조사한다.

둘째, 생태관광을 즐기면서 교육기능이 발현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육청과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 간다. 농민들이 도시민과 학생에게 교육시킬 때 이에 따른 강사료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 단체와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을 지원한다. 생태관광자원을 관리하고 이를 교육활용에 이용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한다.

넷째, 생태관광의 범조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간다. 매스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홍보와 책을 제작하여 무료공급해 준다.

V. 결론

1. 요약

생태관광의 이용성 증대와 더불어 이의 교육적 가치 창조를 위한 체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연탐사와 농촌생활문화체험을 교육적 가치와 목표달성으로 연결시키는 복합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도시민과 농민의 의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생태관광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농민과 도시민의 84.5%가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젊은층과 고학력일수록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필요한 이유는 “농촌이해의 근본이 된다”가 44.3%, “도농 유대관계”가 21.2%, “교육적 사회적 가치”가 20%이다. “농장 활용학습활동”이 36.1%, “전통문화체험”을 28.28%가 선호하고 있으며 농민과 관계 맺기는 “농업노동체험과 농민이해”가 36.5%, “시기별 축제로 공유문화 창조”가 34.0%, “공동숙식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20%이다. 도시민이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농축산물 재배 및 사육작업에 참여, 1평씩 농장가꾸기와 관찰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용 자원은 농지, 자연환경, 문화와 생활양식 순으로 원하고 있다. 농민의 41.7%가 농촌에 대한 교육을 시켜줄 의향을 갖고 있으며 젊고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이다. 농민은 37.4%가 현장방문하여 견학과 실습에 의한 교육연계를 바라고 있다. 생태관광의 주체는 농민+도시민+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35.3%이다.

이를 기초로 농촌과 도시가 유기체적 관계를 유지하며 생태관광과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발현할 수 있는 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간다. 지역사회 별로 자원을 조사하고 교육적 가치를 파악한다. 이의 주체는 농민+학생+도시민이 되어서 추진하며 결과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이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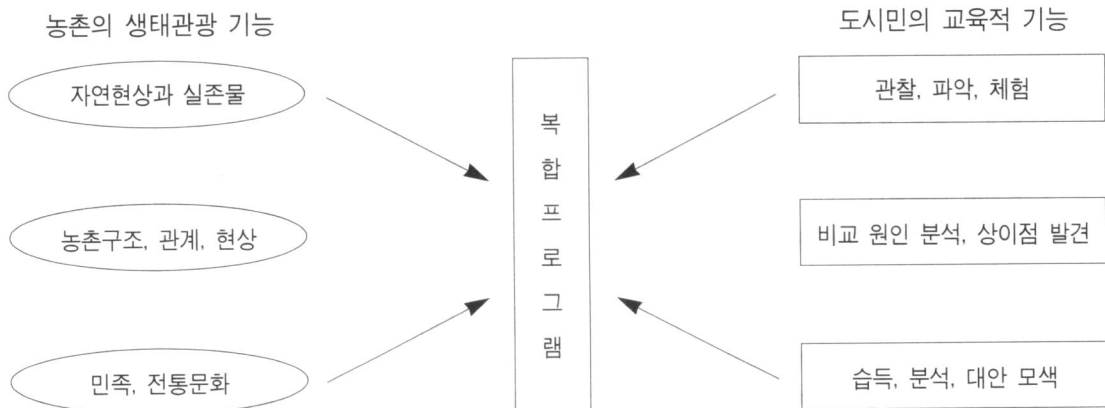


그림 2. 복합내용

활용할 때 도·농의 발전과 도·농민의 생활의 가치와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2. 정책건의

1) 국내 도·농교류 모형 연구개발에 따른 정책지원을 해준다.

2) 농촌관광개발 시행자에게 행·재정지원을 해준다.

3)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과정에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다.

4)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홍보와 수입증대 방안을 마련한다.

5) 시범생태마을의 교육운영지원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제1단계는 관리보호 인건비와 홍보를 지원하고 제2단계는 보안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3단계는 사례분석의 효과(교육·관광)를 홍보하도록 한다. 제4단계는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및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준다.

6) 생태관광 교육윤리 규범을 정한다.

(1) 자연의 이치를 절대 역행하지 않는다.

가. 자연의 원형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않고 교육적 가치를 창조한다.

나. 번식기의 동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지 않는다.

(2) 보존과 유지의 철학을 실천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과 희귀 동식물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나. 한정된 자원동원과 활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다. 동식물의 증식과 보식에 힘쓰며 자연원형 복원에 노력한다.

(3) 인간과 자연의 유기체적 통합 가치를 추구한다.

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를 교육과 연계시켜 간다.

나. 힘이나 비교우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자연속에서 모험을 체험한다.

(4) 도농교류를 구현한다.

가. 도시민의 교육적 기능을 농촌이 수용한다.

나. 농민의 경제문화적 기능을 도시가 수용한다.

다. 도농간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며 사회적, 동적 밀도를 높여간다.

인용문헌

- 1) APEC Tourism Working Group, Tourism and Environment Symposium, 1995, pp.46-47.
- 2) 강신겸 외 1인 역, 녹색관광(서울: 일신사, 1998), pp.12-13.
- 3) 강원개발연구원, 1996, 지역별 자원실태 및 성장잠재력 분석, pp.21-22.
- 4) 충청남도, 1992, 충남지역의 관광농업 개발에 관한 실증연구, p.68.

참고문헌

1. 강신겸외 1인역, 1998, 녹색관광, 일신사, 지역별 자원실태 및 성장 잠재력 분석, 1996, 강원개발연구원.
2. 김귀곤, 1996, 시범생태도시조성을 위한 연구사례, 서울대학교.
3. APEC Osaka Action Agenda, 1995, 외무부.
4. 관광으로 열어가는 지방시대, 1995, 신한종합연구소.
5. 第 3次 國土綜合開發計劃(1992-2001), 대한민국정부.
6. 吳浩成의 농민신문사, 1993, 농업과 환경-지속적 발전의 과제.
7. 최익수, 共存의-경제와 生態界 相互依存.
8. 김오식, 1996, 세계회를 위한 그린라운드·블루라운드, 신광문화사.
9. 녹색연합, 1996, 습지의 현명한 이용방안.
10. 김준환, 1994,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 웅진출판사.
11. 한국도로공사,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1996, 녹색용단 창녕牛浦늪.
12. 초록빛갈사사람들, 1995, 초록생활(거제도편).

13. 환경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6, 세계생물다양성의날 기념 자연포럼.
14. PATA Travel News, June, 1996, Green Booms curries Favour.
15. Asian Business, May, 1996, Australia urges eco compromise on WTO.
16. Travel News Asia, Feb, 1996, Going green with more Wildlife and Ecotours
17. Reimbursing The Future Biodiversity Series, Paper No. 9,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Sports and Territories, Australia, 1996.
18. OECD, 1994, Applying Economic Instruments to Environmental Policies and Dynamic Non-member Economies
19. Tourism Guide to the Resources Management Act New Zwaland Ministry for Environment, 1996.
20. Environment Impacts of Tourism in Developing Countries Travel & Tourism Analysis, EIU, No. 2, 1996.
21. Medoterrarean Wildlife Pete Raine, Harrap Columbus, 1996.
22. Vietnam, Robert Storey, Lonely Planet, 1995.
23. COSTA RICA, Rob Rachowiecki, Lonely Planet, 1994.
24. Tourism in Spain, Critical Issues.
25. Leisure and Tourism,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 University of Sydney, 1996.
26. The Importance of Land Use Planning and Zoning to the Ecotourism Society, S. Ralston, University of Utah, TTRA, Report, 1996.
27. Ecotourism Management in the National Park Service Resource Stewardship Team, Ecosystem Management Working Group US Department of Interior, 1996.
28. Sarawak, 1996, Sarawak - The Land of National Wonder National Parks and Wildlife Office
29. Expanding Responsibilities: A Blueprints for the Travel Industry.
30. Eriet Cater & Gwen Lawman, 1994, Ecotourism: A Sustainable Option, the Royal Geography Society